

Part 1 — 돈의 종말 (Q&A)

본강의가 못 다 푼 두 질문 — 통화의 미래와 미국 주식의 운명

· 정리 2026-05-13

통화의 시대가 끝나고 있다

박종훈의 경제로드맵 첫 번째 Q&A 시간. 수강생들이 가장 많이 던진 두 질문이 향한 곳은 같은 뿌리 — 종이돈의 시대가 끝나가고 있다는 인식입니다.

Q1은 통화의 미래를 묻습니다. 비트코인이 미래 화폐 후보일까, 일론 머스크가 에너지 화폐 얘기를 자꾸 꺼내는 이유는 무엇일까. 사실 같은 화두를 헨리 포드가 100년 전인 1921년에 이미 던졌습니다.

Q2는 더 실용적입니다. 달러 패권이 흔들리면 미국 주식을 가진 사람은 안전할까. 답은 베네수엘라가 미리 보여줍니다 — 화폐 105분의 1 토막인데 주가는 1,000배 폭등.

두 질문을 따라가면 같은 결론에 다다릅니다. 종이돈 다음 시대의 통화 지형과 그 전환기에 자산을 지키는 두 축에 관한 시각.

1,000배

베네수엘라 주가 3년 반 만의 폭등 (통화는 105분의 1 토막)

달러가 흔들리면 정말 미국 주식도 위험할까? — 통념의 반대편에 답이 있습니다.

본위제가 뭐냐 — 비트코인은 자격 미달

본위제(本位制)의 정의가 답을 줍니다. 화폐를 가져가면 정해진 양의 무언가로 바꿔준다는 시스템. 1971년까지 미국 달러는 금 교환증이었습니다. 달러를 들고 연준에 가면 정해진 양의 금으로 바꿔준다는 보장. 그 보장 덕분에 달러가 기축통화로 자리 잡았습니다.

닉슨이 1971년 금태환 중단을 선언하자 금 본위제는 근본적으로 붕괴했습니다. 그 자리에 에너지가 들어올 수 있을까? 가능합니다 — 단, 토크나 지폐를 들고 가면 정해진 양의 에너지로 바꿔준다는 보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럼 비트코인은? 막대한 전기를 들여 만든(Proof of Work) 자산이지만 비트코인을 들고 가서 전력이나 석유로 바꿔주는 시스템이 없습니다. 담보 자산이 없다는 뜻. 에너지를 많이 쓴 자산이지 에너지 본위제의 기축통화 후보는 아닙니다.

다음 카드에서 100년 앞서 같은 화두를 던진 사람을 만납니다.

본위제 비교 — 금 vs 에너지 vs 비트코인

구분	교환 보장	본위제 자격
금 본위제 (1971년 이전)	달러 ↔ 금 (연준 보장)	✓ 정합
에너지 본위제 (가능성)	토크 ↔ 에너지 (정해진 kWh)	✓ 정합 (보장 있을 때)
비트코인	에너지로 교환 보장 X	✗ 자격 미달

100년 앞선 통찰 — 헨리 포드의 1921

에너지 화폐의 원조는 일론 머스크가 아닙니다. 헨리 포드가 1921년에 이미 제안했습니다. 컨베이어 벨트로 노동의 본질을 바꾼 사람답게 그는 '국가의 진짜 생산력은 금이 아니라 에너지'라고 일찍부터 알아챘습니다.

당시 그의 시선은 분명했습니다. 금 본위제는 월가 금융 자본가가 노동의 결실을 빼앗는 약탈 시스템. 그가 제안한 방식은 단순했습니다 — 1 트로이온스 = 35달러가 아니라, 에너지 10kWh = 1달러 식으로 에너지에 달러 가치 고정.

그러나 시기상조였습니다. 1921년 12월 4일 New York Tribune에 발표, 머슬쇼즈(Muscle Shoals) 발전소 + kWh 단위의 구체적 계획이었지만, 이틀 뒤 NYT가 '비틀거리며 쓰러진다'고 비판했고 1924년 정치적 반대로 포기됐습니다. (+ 4)

비트코인이 100년 뒤 같은 발상(에너지 소비 증명)을 다른 형태로 재구성할 때까지, 헨리 포드의 시도는 잊혀 있었습니다.

■ 에너지 화폐 100년 — 헨리 포드부터 비트코인까지

시점	이벤트	내용
1921-12-04	NYT 발표	머슬쇼즈 발전소 + kWh 단위 화폐 시스템 제안
1921-12-06	NYT 비판	'비틀거리며 쓰러진다' — 이틀 만의 논평
1924	포기	정치적 반대로 헨리 포드 계획 좌절
2009	Bitcoin	Proof of Work — 100년 뒤 같은 발상 재구성

일론 머스크의 화폐관 — 데이터베이스로서의 화폐

100년 뒤 같은 화두를 다른 언어로 다시 꺼낸 사람이 일론 머스크입니다. 그가 보는 화폐는 우리와 완전히 다릅니다 — 화폐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이고, 진짜 역할은 누가 더 많은 에너지를 생산·소비할 수 있는가의 증명.

그래서 머스크에게 모든 종이돈이 소프트 커런시입니다. 정부가 마구 찍어 인플레이션이라는 노이즈를 만들고 있는데, 미국 달러도 다를 게 없다는 시각. 달러의 담보 자산이 미국 국채라는 점이 결정적 — **미국이 빛을 많이 질수록 더 많은 달러를 찍을 수 있는 구조.**

진정한 하드 커런시는 달러가 아니라 문명을 유지시켜주는 에너지. 그가 화성을 자주 꺼내는 이유도 거기 — '달러나 금을 화성에 가져가 보라. 무슨 의미가 있느냐.' 테슬라가 자동차 회사가 아닌 이유도 거기 — **솔라시티(생산) + 메가팩(저장) + 전기차(소비)의 에너지 생태계.**

■ 헨리 포드 (1921) vs 일론 머스크 (2026) — 같은 화두 다른 시대

구분	헨리 포드	일론 머스크
핵심 인식	에너지 = 국가 생산력	에너지 = 문명 유지
방법	kWh = 달러 가치 고정	에너지 생태계 구축 (테슬라)
적	월가 금융 자본가	마구 찍는 종이돈
비유	전구 = 에디슨 (전력 생태계)	화성 = 진짜 화폐의 시험장

21세기에 가능해진 두 가지 — 블록체인과 ESS

헨리 포드 시대에 에너지 화폐가 안 됐던 이유는 단순합니다. 화폐 3대 기능 — 가치 척도 / 교환 매개 / 가치 저장 — 가운데 두 가지가 기술적으로 어려웠습니다. 1kWh당 N달러 고정 같은 가치 척도는 헨리 포드 시대에도 가능했지만, 거래 매개와 저장은 풀리지 않는 숙제였습니다.

교환 매개: 에너지는 전선을 따라 흐르며 손실됐습니다. 헨리 포드 시대엔 가치를 정확히 옮길 수가 없었죠. 21세기엔 블록체인과 토큰화로 풍경이 바뀌었습니다. **실물 에너지는 전력망에 두고 소유권만 토큰으로 거래**하면 됩니다. 거래 비용도 손실도 거의 없습니다. 분산 원장에 기록되니 위변조 우려도 적습니다.

가치 저장: 헨리 포드 시대엔 전력을 장기 저장하기가 어려웠습니다. ESS(Energy Storage System)가 발전하면서 부분적으로 가능해졌습니다. 배터리는 시간에 따라 일부 손실되지만 단기·중기 저장의 활로는 열렸습니다.

두 기능이 비로소 실현 가능해진 시점 — 헨리 포드의 100년 앞선 통찰이 기술적 토대를 만난 결입니다. 다음 카드에서 그림에도 남는 본질적 한계를 봅니다.

■ 화폐 3대 기능 — 1921 vs 2026

기능	1921 (헨리 포드 시대)	2026 (블록체인·ESS)
가치 척도	가능 (1kWh = N달러)	가능
교환 매개	어려움 (전선 손실)	가능 — 블록체인 토큰화
가치 저장	어려움 (저장 기술 부족)	부분 가능 — ESS

엔트로피 법칙 — 금이 우위인 이유

여전히 한계는 있습니다. 가치 저장 측면에서 금은 압도적 우위를 지킵니다. **엔트로피 법칙** — 무질서도가 끝없이 증가한다는 자연의 법칙. 쉽게 말하면 에너지는 새어 나갑니다. 자연이 정한 규칙이라 기술로도 우회가 어렵습니다.

배터리는 시간 지나면 저장 에너지가 점점 줄어듭니다. 수소는 분자가 너무 작아 저장해도 누출 — 액체 수소 상태에서도 총량이 감소합니다. 석유는 오래 저장 가능하지만 탈탄소 분위기에 시대적 가치가 새어 나가는 중. 결국 어떤 에너지 형태로 저장해도 시간과의 싸움에서 손실은 불가피합니다.

금은 영원합니다. 5천 년 전 이집트 무덤의 황금은 지금도 같은 질량.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금 vs 에너지의 격차는 이 자연의 법칙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금으로 저장하고 장사는 에너지로 한다'** 같은 21세기형 격언이 나올 수 있는 배경입니다.

그럼에도 일론 머스크의 시각에 동의할 만한 부분이 있는데, 다음 카드에서 미·중 패권 분리라는 강한 동력을 봅니다.

엔트로피 법칙 — 가치 저장 차이

저장 수단	엔트로피 영향	장기 가치 보존
금	거의 없음 — 영원	압도적 우위
배터리	시간 따라 감소	어려움
수소	분자 누출	어려움
석유	저장 가능하지만 탈탄소	시대적 가치 새어 나감

미·중 패권 — 진영 간 표준 통화의 필요성

엔트로피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화폐 가능성을 키우는 강한 동력이 있습니다. 노동이 AI와 로봇틱스로 바뀌는 세상에서는 모든 가치가 결국 에너지로 환산됩니다. 더 결정적인 동력은 미·중 패권 분리입니다.

1980년대 미·소 냉전을 떠올려 봅시다. 미국 진영은 달러, 소련 진영은 루블화를 썼습니다. 진영 간 거래에서는 어느 한쪽 통화로 합의가 안 됐죠. 미·중 시대도 같은 구조로 진행될 가능성이 큼니다 — 달러로 합의 어렵고, 위안화도 마찬가지.

그렇다면 진영을 넘나드는 표준 통화가 필요한데, 여기서 에너지가 후보로 들어옵니다. 금은 이동·증서 신뢰가 어렵습니다. '네가 나한테 금을 준다는 보장이 어디 있냐'는 의심이 패권 전쟁 시대엔 더 커지죠. 증서 거래의 신뢰가 무너지면 결국 실물이 오가야 하는데, 금괴를 비행기로 옮기는 건 21세기 무역량 규모에 맞지 않습니다.

결국 21세기 진영 간 거래에서 에너지가 가치 교환 수단으로 등장할 가능성 — 일론 머스크가 그렇게 주장하는 배경입니다. 아직 불확실하지만 시대적 요구는 분명합니다. 노동의 본질이 AI·로봇틱스로 바뀌는 세상에서는 모든 가치 사슬의 종착점에 에너지가 있다는 인식이 더 단단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카드에서 향후 통화 시스템이 단일이 아닌 **4분화 방향**으로 진화한다는 그림을 봅니다. 금이 장기 가치 저장, 에너지가 진영 간 거래, 종이돈이 일상, CBDC·스테이블 코인이 디지털 진화. 4 구간이 각자의 역할을 맡는 다층 구조입니다.

향후 화폐 4분화 진화

종합하면 향후 통화 시스템은 단일 기축통화가 아니라 4분화 방향으로 진화할 가능성이 큽니다. 4구간이 각자의 역할을 맡는 다층 구조 — 단일 통화에 익숙한 우리 시야가 통째로 바뀌어야 할 시점입니다.

금은 장기 가치 저장 수단으로 여전히 유효합니다. 4천 년 동안 통한 유일한 길. 엔트로피 법칙의 예외이자 모든 문명의 신뢰 자산.

종이돈(달러·유로·위안·원)은 국내·우방 간 거래 수단으로 계속 쓰입니다. 다만 신뢰가 낮아지면 **CBDC·스테이블 코인**으로 진화 — 공룡이 조류로 진화한 것처럼 형태를 바꾸며 살아남는 걸. 미국 GENIUS Act 같은 입법이 이미 그 방향을 가리킵니다.

에너지는 국가·진영 간 거래의 가능성 후보. 일론 머스크의 주장이 맞다면 21세기 후반에 본격화될 시나리오. 미·중 진영 어느 쪽 통화로도 합의 불가능한 거래에 에너지가 들어옵니다.

■ 향후 화폐 4분화 진화

구간	통화	역할
장기 가치 저장	금	4천 년 통한 유일한 길
국내·우방 간	달러·유로·위안·원	진영 안 거래
종이돈 진화	CBDC·스테이블 코인	디지털화
국가·진영 간	에너지 (가능성)	패권 표준 통화

다극화의 노멀 — 단일 기축통화는 300년 예외

여기까지 들으면 이상한 감이 듭니다. '원래 기축통화 하나로 국제 거래하는 거 아닌가요?' 그게 우리 시대의 익숙함입니다. 그러나 인류가 통화를 사용한 4천 년 중 단일 기축통화 시대는 영국 파운드부터 미국 달러까지 약 300년뿐.

가장 가까운 사례가 대항해 시대. 통화가 세 층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 금(왕실 금고의 가치 저장), 은(실제 무역의 표준 통화), 동(서민 일상). 격언이 남아 있죠. '금으로 저장하고 장사는 은으로 한다.'

21세기에 같은 패턴이 다시 등장할 가능성 — 금이 가치 저장, 에너지가 진영 간 거래, 종이돈·CBDC가 일상의 3층 구조. 단일 통화의 익숙한 한 세대의 시야가 바뀔 수밖에 없는 시점입니다.

4천 년 통화사 — 단일 기축은 300년 예외

시기	통화 구조	비고
로마 시대	솔리두스 (금) + 눈무스 (불순물)	K자형 — 본강의 S
대항해 시대	금 (저장) + 은 (무역) + 동 (일상)	3층 구조
근대 영국·미국 (300년)	단일 기축 (파운드 → 달러)	예외적 시기
21세기 가능성	금 + 종이·CBDC + 에너지	3층 재현 가능성

베네수엘라 1,000배 — Catastrophic Boom의 실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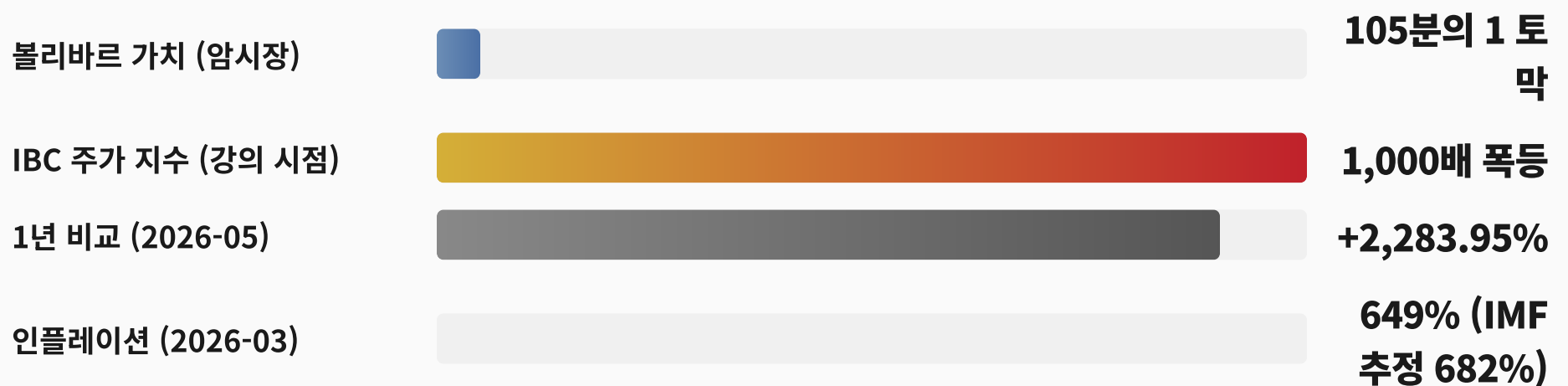
Q2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질문은 실용적입니다 — '달러 패권이 흔들리면 미국 주식 보유자는 안전한가.' 답을 찾기 전에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나라 중 하나의 주가 지수를 먼저 봅니다.

베네수엘라 IBC 주가 지수: 2022년 1월 5,300 → 2025년 7월 53만(100배) → 강의 시점 600만 (1,000배, 화폐 개혁 전). **3년 반 만에 1,000배.** 베네수엘라 경제는 박살이 났는데도 주가는 폭등했습니다.

비밀은 통화 가치 하락 — 같은 기간 볼리바르가 암시장 기준 **105분의 1 토막.** 통화가 떨어진 만큼 주가가 정직하게 올라간 셈. 사람들이 '종이돈은 휴지' 인식으로 실물·주식으로 자산을 옮긴 결과입니다.

외부 자료가 그 후를 채워줍니다. 2026-05 IBC 5,663(화폐 개혁 후 단위) — **1년 비교 +2,283.95%.** 인플레이션 2026-03 기준 649.47%, IMF 추정 682%로 세계 최고치 갱신 중. (+2)

베네수엘라 — 통화 vs 주가 (3년 반)



통화가 떨어진 만큼 주가가 정직하게 올라간다

Catastrophic Boom — 화폐 가치 하락의 3대 고리

본강의에서 정리한 메커니즘이 베네수엘라에서 실증됐습니다.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 모든 자산이 파멸적 상승(Catastrophic Boom)을 보이는 이유가 세 단계로 작동합니다. 한 번 시작되면 멈출 동기가 없는 자기증식 구조.

1단계 — 국가 부채의 늪: 정부가 부족한 돈을 메우려 국채를 찍습니다. 시장이 사주지 않으면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 직매입. 채권자의 신뢰가 무너지는 임계점이 여기.

2단계 — 돈 풀기 + 돈 뿌리기: 연준의 양적완화와 정부의 재정 적자가 동시 진행되면 통화량이 폭발합니다. 베네수엘라·튀르키예·아르헨티나가 다 같은 곡선을 그렸죠.

3단계 — 막대한 신용 창출: 마지막 단계에서 자산 시장 전체가 부풀어 오릅니다. 이 고리가 깨지지 않는 한 화폐 몰락만큼 자산 가격은 동반 상승 — 주식·금·비트코인 모두 같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베네수엘라가 보여준 1,000배 폭등의 본질이 이 메커니즘. 그렇다면 같은 위치에 미국이 들어가면? 다음 카드에서 빅테크의 결정적 차이를 봅니다.

3대 고리 — Catastrophic Boom 메커니즘

1단계

국가 부채의 늪

정부가 국채 발행. 시장이 안 사주면 중앙은행이 돈 찍어 직매입.



2단계

돈 풀기 + 돈 뿌리기

연준 양적완화 + 정부 재정 적자 동시 진행 → 통화량 폭발.



3단계

막대한 신용 창출

자산 시장 전체 부풀어 오름. 화폐 몰락만큼 주식·금·비트코인 동반 상승.

미국 빅테크 ≠ 베네수엘라 — 글로벌 영업이 헷지

그런데 미국은 베네수엘라와 차원이 완전히 다릅니다. 베네수엘라의 멀쩡한 기업은 아예 없는데도 주가가 1,000배 올랐습니다. 그 얘기는 **돈만 풀리면 엉터리 기업만 있어도 주가가 오른다**는 뜻. 통화 가치 하락이 주가 동력의 결정적 변수라는 사실.

미국 빅테크의 경쟁력은 비교 자체가 안 됩니다. 더 결정적인 점은 **글로벌 영업 비중** — 애플·구글·아마존은 영업의 절반 이상을 해외에서 합니다. 매출 통화 다변화가 자연 헷지 구조.

달러 가치가 다른 나라 통화보다 낮아진다 → 빅테크 영업이익은 **오히려 급증**. 유럽에서 유로화로 받은 매출을 달러로 환산하면 그만큼 늘기 때문입니다. 베네수엘라 식 주가 상승과는 결이 다른, 실질 가치 상승의 헷지.

결론은 단순합니다 — 달러 가치 급락 시 미국 주식 보유는 **달러 화폐 몰락으로부터 내 구매력을 지키는 수단**. 강의가 짙은 관점입니다. 미국 주식은 투자 자산이자 동시에 달러 몰락에 대한 헷지 도구.

베네수엘라 기업 vs 미국 빅테크

구분	베네수엘라	미국 빅테크
경쟁력	거의 없음	글로벌 최상위
영업 비중	내수만	해외 50%+
달러 약세 영향	주가 폭등 (통화 따라)	영업이익 ↑ (헷지 효과)
성격	통화 박살의 결과	달러 몰락의 헷지 도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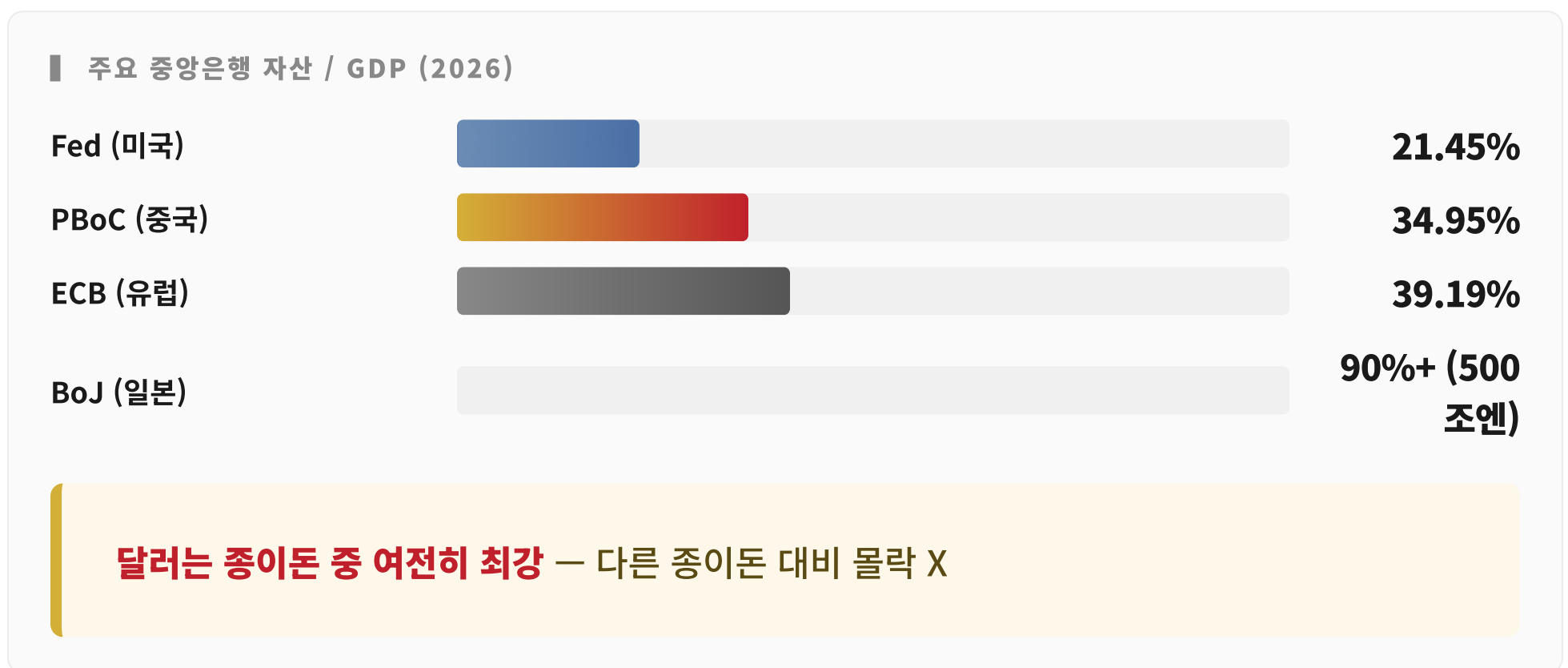
달러는 종이돈 중 여전히 최강

오해 방지를 위해 짚어둡니다. **달러 몰락은 금 대비 몰락**이지 다른 종이돈 대비 몰락이 아닙니다. 세계 4대 중앙은행의 자산/GDP 비율이 증거입니다.

Fed는 자산/GDP 21.45%로 가장 적게 찍은 중앙은행입니다. 반면 BoJ는 105% 수준 — 강의 시점 기준 4배 이상 차이. ECB 39%, PBoC 35%. 종이돈 간 경쟁에서는 여전히 달러가 패권.

외부 자료가 BoJ의 최근 추이를 채워줍니다. 2026-03 BoJ 자산이 500조 엔을 넘어섰지만 자산/GDP는 **90%+ 수준으로 약간 내려옴**. 한 분기 사이 양적긴축(QT) 진행된 결과로 보입니다. 그래도 4대 중앙은행 중 최고 비율은 그대로. (†3)

달러 vs 엔화·위안화·유로화 모두 달러 우위. 이 격차가 단기간에 좁혀질 정황은 없습니다.



†3 BoJ 자산 / GDP fred.stlouisfed.org

원화 미래 + 진짜 위험 신호 — 10년물 4.5·5.0

한국 투자자 입장에서 더 직접적인 질문은 원화의 미래. 옆 나라 일본이 답을 미리 보여줍니다. 달러/엔 환율: 2012년 76엔(아베노믹스 시작) → 2026년 157엔. 14년 만에 엔화 절반 토막. 원인은 아베노믹스의 세 화살 — 돈 찍기 + 재정 적자 + 구조조정.

한국 현재 정책은 아베노믹스를 닮은 결을 보입니다. 통화량은 늘어나는데 통계까지 바뀌 '돈을 안 찍었다' 주장. 정부 재정 적자도 가파르게. **세 화살 중 두 화살은 이미 닳아 있고, 결과도 비슷한 방향일** 가능성이 큼니다. 다만 일본 G2 → 한국 G9이라 더 약해질 가능성.

이제 핵심으로 — 진짜 위험 신호는 무엇인가. **달러 몰락 자체는 미국 주가 위험 신호 X** (베네수엘라가 보여줬듯이). 진짜 신호는 미국이 달러 가치를 지키려고 태도를 바꿀 때.

외부 자료: 2026-05-08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4.38%** — 강의 시점 4.15%에서 +23bp. 강의가 명시한 경계 4.5%까지 12bp 남았습니다. 위기 5.0%까지 62bp 여유. 연준이 기준 금리를 계속 내려도 10년물은 멈추지 않는 — 시장이 정부와 AI 채권을 의심하기 시작한 신호. (+1)

†1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federalreserve.gov](https://www.federalreserve.gov)

통화의 시대가 끝나가고 있다

두 질문이 향한 곳은 같은 뿌리였습니다 — 종이돈의 시대가 끝나가고 있다는 인식. 다음은 다극화·다층화된 통화 시스템이며, 그 전환기에 금과 미국 주식은 종이돈 몰락으로부터 자산을 지키는 두 축으로 남는다는 시각.

다만 미국이 달러를 지키려 태도를 바꾸는 순간 게임의 규칙이 바뀝니다. 10년물 국채 금리가 그 신호를 가장 정직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 4.5% 경계, 5.0% 위기 단계.

강의는 행동 권유가 아니라 모니터링을 짚었습니다. 종이돈 간 경쟁에서는 달러가 여전히 최강이고, 빅테크 글로벌 영업이 달러 약세 헷지 역할을 하며, 시장 금리가 자체적으로 오르는 흐름이 진짜 신호라는 관점입니다.

통화의 시대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다극화·다층화된 통화 시스템이며, 그 전환기에 금과 미국 주식은 종이돈 몰락으로부터 자산을 지키는 두 축으로 남습니다. 다만 미국이 달러를 지키려 태도를 바꾸는 순간 게임의 규칙이 바뀝니다 — 10년물 국채 금리가 그 신호를 가장 정직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다음 본강의

Part 1-3 「고물가가 뉴노멀이 된 시대」

본 Q&A에서 짚은 인플레이션 메커니즘이 본격 분석됩니다. 트럼프 3종 도구 / 닉슨·번즈 평행이론 / 12~18개월 시차 / PCE 4% 트리거 신호까지.

본 콘텐츠는 강의 정리 목적이며 특정 자산의 매수·매도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외부 자료(+1~+4)는 강의 시점 이후의 정량 변화와 사례 후속을 보강합니다. 모든 투자 판단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